

2017년 10월 18일, 한경면 낙천리 저거흘못 정자, 이효순 조사.

조성동(남, 1940년생, 한경면 낙천리)

- 줄거리: 옛날 머슴이 있었는데 계약기간이 다 되어 주인은 그에게 산을 줘야 했다. 주인은 보상을 돈이 아닌 쌀만 조금 주고 보내 버리고 싶었다. 그래서 머슴에게 “쌀을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라. 네 힘으로 한 번에 정낭 밖까지 가져가는 것은 다 네 소유다.” 하고 말했다.

그런데 머슴은 워낙 힘이 센 사내라서 기본으로 등에 쌀 여섯 가마니를 지고, 양손에 두 가마니씩 모두 쌀 열 가마니를 지고 들었다. 그래도 욕심이 생겨서 또 쌀 두 가마니를 이로 물어서 간신히 정낭 밖까지 넘어갔다고 한다.

[제보자] 나도 들은 말인디. 옛날, 놈이 집 쉐 맥이는 장남. 기운 센 놈이 집 사는 장남이 잇엇는디. 그 요새 정년퇴직 기간이 다 뛰난 집을 나가肯 허난. 주인이 그러며는 나가는 건 좋은디 보상을 해사 될 거 아니우꽈? 월급을.

[조사자] 맞주마씨게. 예.

[제보자] 월급을 그때

“쌀로 느 가져가고 싶은 만이 가져가라.”

우리 정낭. 정낭이렌 헌 건 경계선.

“정낭 바깟디??지만 훈번에 가져가믄 너 소유다.”

게난 그 장남은 힘이 원체 좋아노난. 우선 등에 지는 건 기본. 기본을 요솟 가맹 일 젓어야. 딱 기영 기본으로 지고. 이쪽에 두 갤 들러서양. 이쪽에 두 개. 게난.

[조사자] 요솟에 요듭 가마?

[제보자] 아니. 열 개주기. 요솟은 등에 지고. 둘에 또 둘 허난 열 가맹이허고. 게난 그 장면을. 게난 문 열두 가맹이를 지언. ‘올레 정낭 바꼰디??지만 지엉 나가믄 너 소유다’ 허난 그걸 지언 나갓덴. 그것도 족아 베연 니로 또 두 개 물었어예.

[조사자] 나가긴 나간마씨?

[제보자] 나가난. 게난 열두 가맹이 모다 지언 나간. 이건 우리 므을이 아니고 어디 동네 기운 센 장남.

- 핵심어: 장남(머슴), 정낭, 주인, 욕심, 힘, 쌀, 가맹이(가마)